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2년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 연구활동보고서**

2022. 12.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및무료셔틀버스발전방안연구모임**

목 차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마을버스및무료셔틀버스발전방안연구모임 소개	1
2. 2022년 연구활동 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5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7
1. 전문가특강	7
2. 월례회의	11
III. 활동후기	13
IV. 언론보도	24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마을버스및무료셔틀버스발전방안연구모임 소개	1
2. 2022년 연구활동 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5

I -1. 마을버스및무료셔틀버스발전방안 연구모임 소개

- ☐ 단 체 명 :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
- ☐ 소속의원 : 김양희(대표), 서호성(간사), 박경희, 강민하, 홍정희 의원
-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 연구활동계획

단 체 명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	
연구내용	주제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만들기	
	목적	서대문구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 정책방안 연구	
연구활동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연구 활동비 책정액 (2022년)	총 액	금이백삼십만원(₩2,300,000원)	
	산출내역	- 행사비 : 650천원 - 현장탐방비용 : 650천원 - 업무추진비 : 500천원 - 연구결과 자료제작비 : 500천원	

☐ 연구목적

- 지역 내 교통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이동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시스템 활성화
- 주민의 생활반경에서 통학, 통근, 여가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교통 정책 연구
-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대문구 조례 제·개정 추진

☐ 연간 연구계획

- 서대문구 관내 대중교통 이용률 실태조사
-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노선 현황 분석
- 버스기사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 관련 노동자 처우 및 애로사항 점검

☐ 2022년 세부 활동계획

○ 주요내용

- 서대문구 관내 대중교통 이용률 실태조사
-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노선 현황 분석
- 버스기사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 관련 노동자 처우 및 애로사항 점검

○ 주요활동

- 월례회의, 전문가 특강(1회) 등

※제285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연구활동 기간이 겹쳐 중복활동이 어려워 전문가 특강으로 활동이 마무리되었음.

○ 월간 계획

9월	월례회의, 정책연구용역 논의 및 발주
10월	월례회의, 전문가 특강, 정책연구용역 간담회
11월	월례회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정책토론회
12월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활동 예산안

활동구분	예산	활동내용
행사비	650천원	- 전문가 강연(2회) - 정책토론회(6월)
마을버스 우수사례 견학비용	650천원	- 우수사례 견학(9월)
회의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천원	- 월례회의(8회) - 주민간담회(2회)
연구결과 자료제작비	500천원	- 연구결과 자료제출(12월)
예산 총액	2,300천원	

I -2. 2022년 연구활동 개요

월	활동내역
9월	○ 9. 16.(금) 9월 월례회의
10월	○ 10. 28.(금) 10월 월례회의
11월	○ 11. 9.(수) 대중교통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 11. 25.(금) 11월 월례회의
12월	○ 12. 23.(금) 12월 월례회의

I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2022년 연구활동비 책정금액 : 금2,300,000원

☐ 지출금액 : 금528,000원(집행률 23%)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	적 요	사용처	지출금액	지출구분
1	11/9	대중교통 전문가 초청 강연 강사비	김상철 정책위원장	360,000	강사비
2	11/9	대중교통 전문가 초청 강연 간담회비	일화성	168,000	간담회비
합 계				528,000	

Ⅱ. 연구활동별 보고	7
1. 전문가특강	7
2. 월례회의	11

Ⅱ-1. 전문가특강

대중교통 전문가 초청 강연

- ☐ **참석일시** : 2022. 11. 9.(수) 17:00~19:00
- ☐ **참 석 자** :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 위원
- ☐ **참석목적** : 코로나19 이후 지역 내 교통격차 완화하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한 버스체계의 쟁점 논의
- ☐ **세부일정**

시간	내용
17:00~17:05	- 개회사(김양희 대표의원) - 사진 촬영
17:05~17:10	- 의원연구단체 소개(서호성 간사의원) - 강사 소개(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17:10~18:50	- 전문가 특강(코로나19 이후 버스체계의 쟁점)
18:50~19:00	- 질의응답 - 마무리

☐ 워크숍 주요내용

-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공공교통서비스 확대 필요
 - 서대문구는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지역 내 주거 격차가 큰 곳에서 마을버스 노선수가 많고, 여성 이용자가 많았음. 대중교통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어 동별로 교통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보완해야함.
 - 지선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나 셔틀버스의 배차간격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중교통의 중요성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나 지역 내부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버스회사는 물가 및 유류비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로 운송 수입금이 줄어들면서 운행결손을 감수하며 버스를 운행해야하는 상황임. 이용자는 마을버스·무료 셔틀버스 운행횟수 확대와 배차간격의 축소를 희망하며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요구함.
- 마을버스 운송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부의 비용을 대중교통에 재투자하여 수요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제안함. 또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의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보전금을 재투자로 활용하는 것을 건의함.

□ 질의응답 요약

[김양희 의원]

- 마을버스가 A구와 B구를 회차할 때 해당 구역 사이에 철도시설이 있어 철도와 인접한 곳에 정류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 어려움이 있었음. 자치구에서 요금보상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협의하는 시도가 필요하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서울시가 재정지원기금을 지원하는 요건으로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자치구 단위에서 버스노선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건의하여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하는 것을 제안함.

[서호성 의원]

- 첫차와 막차의 운행시간대와 배차간격이 달라 마을버스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사이에 환승이 어려워 마을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음. 마을버스 서비스를 위축시키는 운행노선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함.
-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활용하여 마을버스 공영노선에 보조금을 확대해주는 방안이나 서대문구의 공영노선 일부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거나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정책 실험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마을버스의 첫·막차 시간과 지하철 환승 연계 등을 고려하면 이용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박경희 의원]

- 무료 셔틀버스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으나 안전한 정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류장이나 목적지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버스체계를 개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대곡 셔틀버스 사례가 있음. 지하철로 환승하는 마을버스 경유지가 많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입주민 전용 직통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성남시민버스처럼 운전기사와 시민이 출자한 버스로 시민주주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차량 내부 광고판을 지역상인과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성남시민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교통복지모델을 구축한 선례가 있음.

[홍정희 의원]

- 코로나19 이후로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마을버스 규모가 줄어들고 업체도 운영난을 겪고 있음. 서울시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사업처럼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마을버스 이용률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서대문구 마을버스 노선이 감축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었을 때 해당 정류장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해서만 정보를 알 수 있어 임시우회, 노선변경, 막차연장운행이 발생할 경우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할 지 고민하는 것도 좋겠음.
-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정확한 운송비용을 산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운전기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함.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주차장이 없는 골목상권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늘리면서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교통정책의 핵심임.

[강민하 의원]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서대문구는 서울시 최초로 저상 전기차 마을버스를 도입했고, 서울에 하나뿐인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함.
서울시내 통행량 중에서 5km 이내 단거리 이동이 전체 이동량의 44%를 차지하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친환경 전기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높이는 정책에 이바지하겠음.
-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서울시 승용차 이용자 속마음 분석 결과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2022)’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 50대 중·장년층은 경제적 이득과 친환경적인 특성을 부각하면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20~30대 청년층은 승용차를 성공이나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 차에 대한 애착이 강하나 최신 유행에 민감하여 전기차를 타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 친환경 교통정책에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마을버스를 이용하겠다는 수요가 있으면 적정 공급량을 만들어 근거리 이동 시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마을버스 1대가 자가용 9대의 통행량을 줄일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고려할 때 계산도 용이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역 내 교통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늘어나므로 더 많은 마을버스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실제 이용률이 확대됨.

□ 전문가 초청 강연 사진



II-2. 월례회의

☐ 월례회의 개최실적 : 총 4회

☐ 주요 논의내용

일시	논의내용
9.16.(금)	- 2022년 마을버스·무료셔틀버스 연구 활동 계획 논의 · 주민의 접근성,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마을버스, 무료셔틀버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10.28.(금)	- 대중교통 환경개선 전문가 특강 실시 ·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교통격차를 완화하는 대중교통정책 이해
11.25.(금)	- 마을버스·무료셔틀버스의 지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지선 기능을 강화하는 마을버스의 운행노선 검토
12.23.(금)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향후 계획 논의 · 2022년 연구활동 마무리 및 차년 계획

Ⅲ. 활동후기	13
---------	----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김양희 의원

서대문구에서 26년 만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증산2교)에서 명지대학교 후문을 지나는 버스로 백련어린이공원, 충암중·고등학교, 북가좌오거리 등을 경유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교통망을 확충하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합의했다. 마을버스 등록업무는 우리 구가 담당하지만, 노선 신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 정류장을 협의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가까운 전철역 또는 노선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 사이에서 노선을 고르고,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정류소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마을버스를 신설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합심하여 면밀하게 준비했다.

기존에 있는 노선버스 1~2개만으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고, 신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노선을 바꾸거나 기존 노선 몇 개를 차출하는 등 노선 추가공급을 바라는 민원이 많았으나 돌려막기식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없었다. 철도나 시내버스 연계가 미약하고, 정류장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아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도 정류소 중복 문제로 노선 신설이 어려웠던 적이 많아 난관을 헤치며 논의를 이어왔다.

서대문15번 마을버스 신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함께 도로여건을 살펴보고 정류장의 위치와 간격을 따져보는 모의운행을 진행했다.

향후에 서부선 경전철이 연계되면 교통망이 확대되어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마을버스를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재 마을버스는 민간에 맡겨 개별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다보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물가 및 유류비 인상 등이 겹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생존 위기에 몰린 마을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운송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역주민, 관계기관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마을버스 적자난 해소를 위한 공론화 필요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여 버스운행횟수를 줄이고, 버스기사도 일터를 떠난다는 소식이 적잖다. 마을버스는 수익이 크지 않지만 교통이 취약한 지역을 운행하다보니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의 틈새구역을 연결한다. 목적지의 시작과 끝을 연계하는 마을버스는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서민의 발이다. 마을버스가 퇴근길의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근거리를 오고 가는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소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마을버스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이 되었지만, 환승횟수가 늘어날수록 버스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어 마을버스의 재정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다. 업체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선별로 차이가 있는 수입금을 정산하여 정산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업체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민영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용객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원금 정리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한다.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지원하여 마을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노선이 폐지되면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성, 편의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야한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의 특성상 오래된 상점이나 시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류장이 많다. 단골가게의 광고나 동네에서 진행되는 행사 소식을 마을버스를 통해 홍보할 수 있어 지역과 연계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가나 골목길의 도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지역주민을 버스기사로 채용하여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미마을 서철이’로 불리는 서대문07번 마을버스 기사님의 말씀처럼 ‘움직이는 마을회관’인 마을버스는 골목의 추억과 역사를 간직하며 오늘도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

재도약하는 여성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활약 기대

박경희 의원

동네에서 육아하는 엄마로 살면서 경력이 이동된 여성을 만났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사건사고에도 동요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차분함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넘기던 그녀였다.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이와 손잡고 동네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세상을 찾아다니던 씩씩한 사람이었다.

돌봄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멈추게 됐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에서 일거리를 찾던 그녀에게 전단지 한 장을 건넸다. ‘여성,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라!’ 경력보유여성이 마을버스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안내문이었다. 운전직도 생소했지만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깥 세상에 나서는 일이 망설여진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라는 아낌없는 응원과 믿음을 보냈고, 그 후 한동안 그녀를 마주치지 못했다.

겨울이 깊어지는 버스정류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다 마을버스에 오른 올라탔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며 천천히 길을 나섰고, 보통날과 같은 풍경에서 그리웠던 미소를 보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체력적으로 부침도 있었고, 굴곡진 골목길을 주행하는 일이 겁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해서 어렵다는 대형면허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에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동네 지리에 밝은 여성이 마을버스운수종사자로 활약하며 이웃의 희로애락을 품는다. 버스 안에 스며든 따스한 햇빛처럼 살뜰하게 승객의 안전을 챙기는 그녀의 마음이 거리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마을버스를 탈 때마다 아

이를 태우고 다니던 동네 골목을 이제는 이웃들의 애환을 담아 실어 나르
다며 환하게 웃는 그녀가 떠올라 일상에서 마주친 버스기사님들께 더없이
감사했다...

마을버스는 골목을 누비는 등불이다. 마을버스가 멈추면 주민의 삶도 멈
춘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와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마을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갖춘 서대문구가 먼저 나서서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듭을 하나씩 풀고, 그녀의 마을버스가 오랫동안 동네 구석
구석에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마을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 필요

강민하 의원

코로나19가 쉽사리 끝나지 않으면서 질병과 재난에 맞서기 위한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택근무를 원하는 학교와 기업이 늘어났고, 혼잡한 공간을 피해 집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사람들로 북적거린 변화가는 텅 비어버렸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이 27% 감소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한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36.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대중교통 이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등하는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 대유행의 변곡점을 따라서 세 차례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나날이 격상되면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안전성평가연구소, 홍콩대학교 연구팀이 차단율이 높은 KF94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대중교통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여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 도착시간과 차량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유, 보통, 혼잡 단계별로 차량 내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교통문화가 바뀌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험이 생활 속에 녹아드는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체험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실제 버스에 접목한 '타요 버스', 매년 12월마다 버스 내부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서 운행하는 '산타 버스' 사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겠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의미와 역할이 실생활에서 확장될수록 지역공동체와 일상이 다른 풍경을 빚어낼 것이다.

오랫동안 내 삶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풍경과 사람이 있다. 물론 빠르게 변하는 도시의 시간 속에서 바뀌지 않는 것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작고 오래된 단골가게처럼 생활반경에서 변하지 않는 나만의 자리를 발견했다.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나머지 너무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을버스가 바로 그곳이다.

버스기사님의 애창곡이나 즐겨듣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들으며 동네 구석구석을 누빌 때면 마음이 포근하고 아늑해진다. 바람이 없고 따듯한 날에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마을버스 특유의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몸을 맡긴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도 날마다 새로고 반가운 마음이 든다.

반대편에 지나가는 마을버스를 향해 반짝하고 손 인사를 건네는 기사님 사이의 수신호도 정겹다. 마을버스에서 드문드문 마주치는 인연의 애뜻함과 스치듯 지나치는 인연의 무심함 사이에 찰나의 진심이 교차한다.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매번 같은 기사님을 마주치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 기사님과 대화를 나눠본 승객은 얼마나 될까. 버스 안에서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는 작은 시선과 환대가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달궈낸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허혁 님의 책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에서 버스기사로서 겪게 되는 고충과 애환을 엿볼 수 있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세워주지 않아 승객과 실랑이를 벌인 사연부터 배차시간을 맞추느라 마음이 조급하여 바쁘게 달려서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 승객이 몰랐던 버스기사의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한다.

‘산다는 건 리듬을 타는 일이다. 그 리듬으로 한 사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저상버스가 휠체어 탄 승객을 싣기 위해 리프트를 펴는 잠시 동안에도 뱅뱅거리며 도로가 난리가 난다. 버스만 바뀌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속도가 지금보다 확실히 낮아져야 한다’라는 기사님의 말씀처럼 구민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에 공동체의 배려와 존중이 스며들기를 기대해본다.

Ⅳ. 언론보도	24
----------------	-----------

□ 주요 보도내용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연구모임, 전문가 특강 실시”

〈2022.11.20. 매일일보〉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양희)’은 최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마을버스 연구모임)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 관내 대중교통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 ·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김양희 대표의원, 서호성 위원장, 박경희 의원, 강민하 의원, 홍정희 의원이 함께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특강 역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빙, 지역 내 교통격차를 완화하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했다.

이에 특강을 통해서도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 서대문구 대중교통 여건에 적용한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을버스 연구모임 의원들은 통학, 통근, 여가생활 등 주민 생활반경과 주요 생활패턴을 고려해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마을버스와 무료셔틀버스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다.

마을버스 연구모임은 이날 특강을 토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강화하는 연구를 지속, 교통 공공성 강화와 물가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강을 마치며 마을버스 연구모임 김양희 대표의원은 “관내 교통수요에 맞춰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역시 복지라고 본다” 며 “마을버스와 무료셔틀버스를 활용하고 더 확충 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 방안 연구모임,
교통 정책 전문가 초빙해 특강 진행”**

〈2022.11.20. 이뉴스투데이〉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양희)’은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이하 마을버스 연구모임)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 관내 대중교통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김양희 대표의원, 서호성 위원장, 박경희 의원, 강민하 의원, 홍정희 의원이 함께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특강 역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빙, 지역 내 교통격차를 완화하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했다.

이에 특강을 통해서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 서대문구 대중교통 여건에 적용한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을버스 연구모임 의원들은 통학, 통근, 여가생활 등 주민 생활 환경과 주요 생활패턴을 고려해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더불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마을버스와 무료셔틀버스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다.

마을버스 연구모임은 이날 특강을 토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강화하는 연구를 지속, 교통 공공성 강화와 물가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강을 마치며 마을버스 연구모임 김양희 대표의원은 “관내 교통수요에 맞춰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역시 복지라고 본다.” 며 “마을버스와 무료셔틀버스를 활용하고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대중교통 환경개선 전문가 특강”

〈2022.11.20. 신아일보〉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9일 오후 5시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이하 마을버스 연구모임)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 관내 대중교통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김양희 대표의원, 서호성 위원장, 박경희 의원, 강민하 의원, 홍정희 의원이 함께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특강 역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빙, 지역 내 교통격차를 완화하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했다.

이에 특강을 통해서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 서대문구 대중교통 여건에 적용한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을버스 연구모임 의원들은 통학, 통근, 여가생활 등 주민 생활 반경과 주요 생활패턴을 고려해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마을버스와 무료셔틀버스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다.

마을버스 연구모임은 이날 특강을 토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강화하는 연구를 지속, 교통 공공성 강화와 물가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강을 마치며 마을버스 연구모임 김양희 대표의원은 “관내 교통수요에 맞춰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역시 복지라고 본다.” 며 “마을버스와 무료셔틀버스를 활용하고 더 확충 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및 무료셔틀버스 발전방안 연구모임’은 최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 = 서대문구의회 제공)